

광주 수출 '히비'...반도체, 자동차에 1위 내줬다

지난달 수출 13억7200만달러로 8억5600만달러 무역 흑자 기아차 질주 수송장비 6억4700만달러...전년비 92.1% 급증 가전·타이어도 증가...반도체, 34.5% 줄어 든 3억600만달러

광주지역 주력산업의 지난달 수출실적이 히비가 엇갈렸다. 지난해 수출 1위 품목 자리를 지켜오던 반도체가 약세를 면치 못한 반면, 자동차는 그야말로 '꽤 질주'를 이어갔다. 냉장고를 필두로 한 가전제품과 타이어의 수출실적도 호조를 보였다.

15일 광주본부세관이 발표한 '2023년 2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입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의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1.0% 증가한 13억7200만 달러, 수입은 27.9% 감소한 5억1700만 달러로 8억5600만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전국적인 수출 약세 현상에도 광주의 수출과 무

역수지가 증가한 것은 자동차 수출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광주의 수송장비 수출금액은 6억47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2.1%나 급증했다. 수송장비 수출 대다수는 자동차였다. 자동차 수출액은 6억160만 달러로 수송장비 전체의 93% 비중을 차지했다.

그 중에서도 승용차 수출은 5억557만 달러로 수송장비 수출액의 86%를 차지한 것과 동시에 전년 대비 117.9%의 성장률을 보였다. 화물차 수출은 4593만 달러로 전년 대비 50.7% 늘었다.

광주의 자동차 수출은 기아 오토헨드 광주가 주도하고 있는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인 '스포티지'의 선방이 돋보였다.

실제 이날 기아 오토헨드 광주의 지난달 차종별 수출용 차량 생산량을 보면 주력 생산 차종인 스포티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 1875대에서 1만1794대로 무려 6.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형 SUV의 왕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셀토스'도 5325대에서 9002대로 수출 생산 물량이 69.1%나 늘어나는 등 스포티지와 셀토스의 활약이 컸다. 이밖에 '쏘울'은 6048대에서 6228대로 2.98% 늘었고, 화물차인 봉고도 2710대에서 2821대로 4.10% 증가했다.

자동차와 함께 가전제품과 타이어의 수출도 늘었다.

지난달 가전제품의 수출액은 1억25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1.3% 증가했다. 가전제품 중 수출 비중 80.4%를 차지한 냉장고의 수출액은 1억53만 달러

로 전년 대비 56.4%의 수출증가율을 보였다.

광주의 수출용 냉장고의 대다수는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프리미엄 냉장고가 차지하고 있다.

금호타이어의 타이어 수출 역시 늘었는데, 지난달 광주의 타이어 수출액은 7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2.9% 증가했다.

금호타이어가 세계 시장에서 브랜드 이미지가 높아지면서 고수익 제품인 프리미엄 고인치 제품의 글로벌 판매가 확대된 게 수출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처럼 최근 타이어의 수출 실적이 오르면서 2021년 적자를 기록했던 금호타이어의 영업이익이 2022년도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도 예측된다.

이처럼 광주의 대다수 주력산업의 수출이 잘나가는 것과 달리, 반도체는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광주의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가 '수출 쇼크' 사태로 지역경제에 위기가감이 엄습하고 있다는 광주일보

보도(2023년 2월9일·17일 각 9면)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달 광주의 반도체 수출액은 3억6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4.5%나 급감했다.

그동안 반도체는 광주 수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광주의 반도체 수출은 사상 첫 60억 달러를 돌파해 명실상부 지역의 대표 수출 품목으로 인지를 굳혔지만, 자동차에 다시 자리를 내어주고 말았다.

지난해 2월 광주 전체 수출액의 37.4% 비중을 차지하며 수출 1위 품목이었던 반도체는 1년 뒤인 지난달 자동차(수송장비)에 밀려 2위로 물러났다. 자동차(수송장비)는 작년 수출액 비중 27.8%에서 47.2%로 압도적인 1위에 올랐다.

광주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지난해는 2월에 설 연휴가 있어 생산일수가 적었고, 반도체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생산 대수가 적었던 기저효과도 자동차 수출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빛그린산단 배후 100만평 국가산단 지정 환영”

광주경총 “자동차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등 미래 먹거리 확보 청신호”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양진석)는 15일 빛그린산업단지 배후단지 338만㎡(100만평) 국가산단단지 지정과 관련해, 광주·전남 경제계를 대표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광주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광주 자동차산업은 내연기관 중심 생산설비로 구축돼 친환경 경 및 미래자동차 산업 전환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장부지와 예산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빛그린산단 배후 국가산단 선정으로 광주는 부지와 예산 확보를 통해 자동차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탄력을 받게 됐다”며 “자동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 집적화로 미래 먹거리 확보에 청신호가 켜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지정된 국가산단은 ▲산업단지 용적

률을 법령상 수준보다 최대 1.4배까지 상향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해소하는 등 정부의 다양한 지원으로 광주지역 자동차산업이 크게 도약할 것으로 광주경총을 기대했다.

양진석 회장은 “광주경총은 국가산단 지정에 노력해준 강기정 광주시장과 정부의 결정에 감사를 드린다”며 “빛그린산단 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해 미래 국가산단이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전남 고용시장 ‘훈풍’

1월 광주 고용률 59.3%...전년동월대비 1.5% 늘어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고용시장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2월 광주·전남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광주의 고용률이 지난해 동월 대비 1.5%포인트 증가한 59.3%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1.2%포인트 증가한 65.8%였다.

광주지역 취업자는 75만9000명으로 1만9000명 증가했다.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 가운데 임시근로자는 3000명 감소한 반면, 상용근로자가 1만7000명 증가해 고용시장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별로는 전기·운수·통신·금융업(9000명·10.2%), 농림어업(5000명·34.6%), 도소매·숙박·음식점업(4000명·2.5%)에서 취업자가 증가했

며, 공공업(-2000명·2.2% ↓), 제조업(-2000명·2.2% ↓)에서 감소했다.

전남은 1만8000명 증가한 취업자 100만3000명을 기록했다. 전남은 무급가족종사자(-1000명)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취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실업률은 2.2%로 전년 동월 대비 1.6%포인트 하락했으며 실업자 역시 1만7000명으로 1만2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남지역 실업률은 2.9%로 0.6%포인트 증가했으며 실업자 또한 3만명으로 7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시세보다 저렴한 공급가·프리미엄 아파트 '힐스테이트 신용 더 리버' 12월말에 온다

광주 신용동 현대주택조합 74~135㎡ 1647세대 규모 206세대 하반기 일반 분양

를 확보했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19개 동, 총 1647세대 규모다. 조합원분을 제외한 전용면적 74~135㎡ 206세대는 일반에 공급된다. 일반분양은 올 하반기 중 진행된다.

특히 도보권 내 광주도시철도 2호선 첨단2지구역(가칭)이 개통 예정이고, 첨단3지구 개발과 교통, 교육, 편의시설 등 생활 인프라가 밀집해 있는 등 투자가치가 높다는 평가다.

이밖에 신용교차로와 인접해 첨단지구 및 도심으로의 접근이 수월하고 제2순환도로와 동림IC, 산월IC를 통해 호남고속도로, 무안-광주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 진입도 편리하다.

반경 1.5km 내 대형마트와 영화관, 병원 등을 비롯해 초·중·고·교도 가깝고, 단지 양옆으로 영산강과 삼각산이 자리하고 있다. 이밖에 근린공원도 다수 조성돼 쾌적한 주거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백성기 조합장은 “조합과 현대건설 간 협력으로 성실과 완벽을 추구해 준공까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1647세대 단지의 고급화된 프리미엄 아파트 건립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기업 10곳 중 4곳 '여성 기업'

2020년 295만개 '역대 최고'...도·소매업 26.7%·부동산 22.6%

여성들이 소유·경영하는 '여성기업'이 295만개로 전체 기업의 4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여성기업은 전년보다 6.4% 증가한 295만개로 파악됐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전체 기업(730만개)의 40.5%에 달한다. 여성기업은 여성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뜻한다.

업종별로 보면 도매·소매업(26.7%)과 부동산업(22.6%), 숙박·음식점업(17.0%) 등이 전체의 66.2%를 차지했다.

여성기업 종사자는 506만명으로 전체기업 종사자의 23.5%에 달했다.

여성기업의 여성 고용비율(69.3%)을 남성기업의 여성 고용비율(30.6%)과 비교하면 2.3배였다. 중기부가 지난해 8~10월 여성기업 5000개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여성 법인기업의 수익성·생산성은 개선됐으나 안정성·활동성은 약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법인기업의 순이익률은 2020년 3.1%에서 2021년 4.0%로 올랐고 1인당 평균 매출액도 2억3400만원에서 2억4860만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안정성을 보여주는 부채비율은 126.9%에서 183.2%로 높아졌고, 활동성 지표인 자기자본 회전율은 3.3배에서 2.0배로 줄었다.

지난 2021년까지는 법인만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지난해에는 법인과 개인을 함께 조사해 비교는 법인기업에 한정했다.

여성 법인기업의 차별대우 경험은 3.9%에 그쳤지만 여성 법인기업으로서 불리한 점에 대해서는 일·가정 양립 부담(100점 만점에 51.2점)이 가장 문제로 지적됐다.

여성기업 경영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교육은 마케팅(47.8%) 분야였고 성장을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자금지원(36.4%)과 세제지원(29.1%) 등이었다.

/박기용 기자 pboxer@

효성티앤에스, NFT 전문 포털 서비스 정식 오픈

'마을' 방문해 NFT 뉴스·거래 현황·테마별 NFT 등 정보 확인

효성그룹의 금융전문 IT 계열사인 효성티앤에스가 베타 서비스로 운영해온 NFT 전문 포털 서비스 'NFTtown' (https://nfttown.io)을 15일부터 정식 서비스로 오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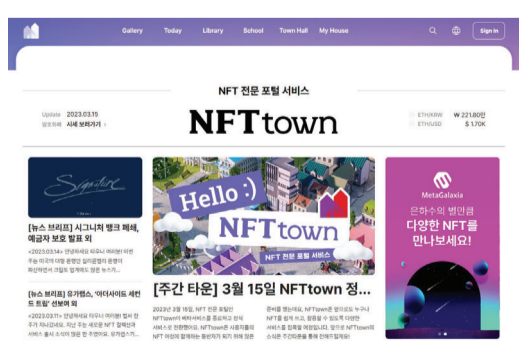
이날 효성에 따르면 NFTtown은 어렵게 느껴지는 NFT를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이용자 '마을 (town)'에 방문한다는 설정이다. NFT 관련 뉴스·거래 현황·테마별 NFT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다.

정식서비스를 오픈하면서 베타 서비스 기간 동안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았던 콘텐츠를 전면배치하는 등 UI(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선하고, 암호화폐 및 NFT마켓플레이스 정보를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로 제공한다.

정식서비스에 맞춰 무료 NFT도 발행한다. NFTtown 주민들이 마을에서 찍은 사진을 컨셉으로 만든 'Towner NFT' 1만개를 NFT런치패드인 'Pala'를 통해 무료로 배포한다.

Towner NFT 소유자들은 각종 혜택을 즐길 수 있다. 커뮤니티 내에서는 행사 우선 참여권 등의 멤버십 혜택을, 오프라인에서는 친환경 패션 스타트업 브랜드 할리케이, 플라츠마마 제품 구매와, 세빛섬 레스토랑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효성티앤에스는 NFTtown오픈 이후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보강하고, NFTtown 전용 모바일 앱을 출시해 거래 및 부가서비스가 가능한 Web3지갑서비스도 계획하고 있다. Web3 지갑은 설정이 간편하고 보안성이 뛰어나서 초보 사용자들도 디지



털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

손현식 효성티앤에스 대표는 “지금까지 쌓아온 금융IT 경험을 적극 활용해 고객들이 NFT라는 디지털 자산을 더 잘 활용하도록 돕고, NFT 시장 저변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NFTtown을 국내 최대 NFT 커뮤니티로 성장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



프로젝트 마이바흐 공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15일 개막한 '2023 서울패션위크'에서 고(故) 버질 아블로의 유작 쇼카(전시용차)인 '프로젝트 마이바흐'(Project MAYBACH)를 국내 최초로 공개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제공)